



불서읽기 캠페인

2008년엔 어떤 불서가 사랑 받았을까?

고따마 붓다 성철 스님 지음 | 문화문고 펴냄 | 2만2000원

역사적 존재인 고따마 붓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따마 붓다>의 저자 성철 스님(강남포교원 원장)은 “붓다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은 오히려 불교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왔다”고 말한다. 스님은 이러한 붓다에 대한 신격화된 시각을 탈피해 철저히 새로운 시각에서 붓다에 관한 전기(傳記)를 펴냈다.

빨리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붓다에 대해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명한 이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붓다가 태어난 인도, 탄생과 전설, 붓다의 젊은 시절 등 붓다의 일대기를 사실적으로 서술하고자 했다.

성철 스님은 “불자들에게 붓다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심을 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불교와 인권 안옥선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2만원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모두 평등하다’는 진리다.

우리는 교과서, 교양서 등 책을 읽다보면 ‘인간 존엄’이라는 말을 많이 접한다. 저자 안옥선 교수(순천대 철학과)는 “‘인간 존엄’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자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말일 뿐”이라며 “생명의 세계에서는 온 존재가 평등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불교는 독특한 인권사상을 가지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인간은 생명실상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그러한 통찰에 합치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존엄할 수 있다.

불교와 민주주의라는 평이하면서도 까다로운 주제를 차분히 정리한 <불교와 인권>은 불교와 ‘인권’이라는 주변화문을 연계한 탐구서다. 불교인권론, 동물 존중, 온 존재 존중, 원효사상과 인권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우리나라 산천은 어디를 가더라도 한없이 넉넉하고 따듯하다. 이보다 더 좋은 휴식처도 없는 그곳의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는 반드시 고즈넉한 마음의 쉼터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사찰이다.

사찰을 찾는 이들은 탐과 석덕이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궁금증은 있을지라도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생각에 지나치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탐과 법당 등 보이는 것부터 공양간, 해우소 그리고 작은 장식까지도 놓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의 저자 목경찬은 기존의 ‘여행’ 중심의 사찰안내를 벗어나 사찰 속 상징과 의미를 불교의 교리와 건축 당시의 신앙으로 해석했다. 달리 불교 교리를 바탕으로 교양과정으로 소화할만한 기초학습서의 성격이 강해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강린포체 1·2: 카일라스 히말라야의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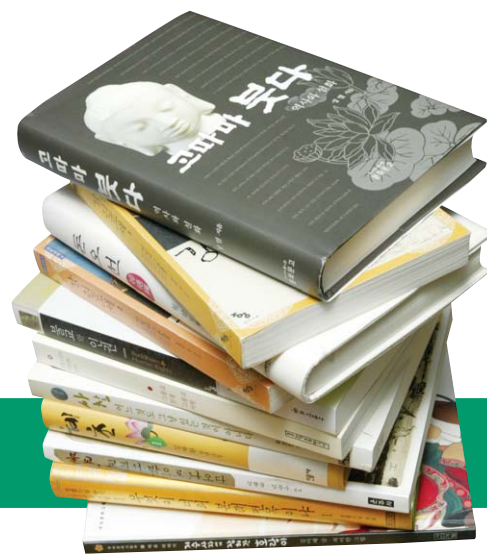
임현담 지음 | 종이거울 펴냄 | 각 1만8000원

티베트불교의 종파선설 세트라는 산 ‘강린포체(Kailas: 힌두교 파괴의 신 시바신이 사는 산)’. 이곳의 산 주변으로 둥그렇게 천대만상 봉우리마다 붓다, 조사, 보살, 티베트 산신들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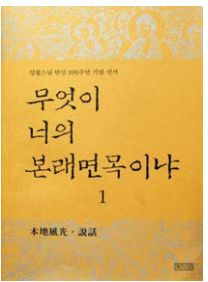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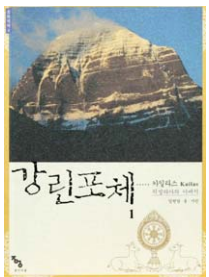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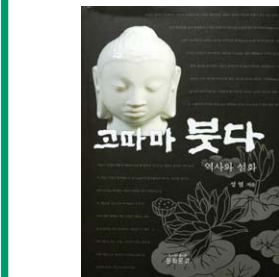
‘의료계에 위장취업한 산악인’이라 불리는 방사선과 전문의인 저자 임현담은 해마다 히말라야의 산들을 누비며 겪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 그곳의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과 함께 <강린포체(카일라스)>를 펴냈다. 히말라야의 카일라스라는 지역은 중국 서쪽에 위치한 해발 6714m의 산으로 이 일대는 라마교도 · 힌두교도의 성지이다. 카일라스는 히말라야에 있는 수많은 산들과 다르다. 신들의 땅으로써 이들 종교인들은 이 산을 순례하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제회복이 멀어져 책 한권 편히 사보는 것도 어려운 요즘, 불교출판계 역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출판사들은 출판 중수를 줄이는 대신 양질의 불서들을 선별해 발행하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 조계종이 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와 불서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양시키고자 12월 5일 개최한 ‘제5회 불교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불서10으로 선정된 <고따마 붓다>(대상) <불교와 인권>(사찰, 그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우수상) 등 총10권을 살펴본다.

이어나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불서 10



저승사자에게 잡혀간 호랑이

김미혜 지음 | 사계절 펴냄 | 1만2800원

전래동화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나무꾼에게 형님 소리 들은 호랑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 옛사람들이 가졌던 죽음 이후의 세상, 즉 저승에 대한 생각을 전해주고 있다.

불교의 전래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승에 대한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육도윤회 사상’이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도(六道: 여섯 가지 세상)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을 말함’을 ‘윤회’하게 된다 한다.

이 책은 ‘육도’의 불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수수밭에 떨어진 호랑이가 저승 대왕들 앞에서 생전에 지은 죄를 심판 받으며 온갖 지옥을 돌아다니고 우여곡절 끝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죽음과 윤회에 대한 생각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린이를 위한 철학서의 성격을 가진 이 책은 이야기와 절묘하게 결합된 그림, 화려한 단장을 보는데는 재색이 그림과 어울려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도범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5000원

2004년 3월 지리산 노고단에서 탁발순례를 시작해 2008년 12월 13일 5년간의 순례를 회향한 ‘생명평화탁발순례단’ 단장 도범 스님이 그간의 사유를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이라는 책으로 정리했다. 1994년 조계종의 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전 실상사 주지 도범 스님은 책을 통해 세계의 근원인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생명평화’ 사상을 전한다.

스님은 40여 년 수행의 귀착지는 결국 ‘생명평화’임을 깨닫고 이를 화두로 삼고 있다. 그리고 현대문명이 자유,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기적 소유욕에서 분열과 대립, 죽고 파괴하는 모습이 있음을 반성한다. 이 책은 저자가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60여 년 동안 살아온 사유의 총화이다.

현실 삶의 구체적이고 절실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식에 대한 보고서로서 손색이 없다.

혜초 1·2 김탁환 지음 | 민음사 펴냄 | 각 1만원

통일신라시대의 혜초(慧超) 스님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 오늘날 인도를 가리키는 다섯개의 천축국을 다녀와 기록물을 남겼다. 현재 <지리지심경>과 같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있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바로 그것이다. <왕오천축국전>은 불교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정세 · 지리 · 풍속 · 언어까지 기록돼 있어 고대 동 · 서 교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고 동시에 완벽한 저술의 형태로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고전문화이다.

작가 김탁환은 방대한 자료조사와 1년여에 걸친 답사 끝에,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역사속에 묻혀있던 혜초 스님의 삶과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고서 <왕오천축국전>에 얽힌 음모와 비밀을 광활한 실크로드 위에 생생히 펼쳐냈다. 구도자이자 위대한 세계인이었던 혜초 스님을 모티브로한 이 소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스님이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모험담을 펼쳐는 형식으로 재구성 됐다. 그 와중에 서역의 이국적인 풍물, 무희와의 로맨스 등 온갖 흥행 장치들이 등장한다.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

김형중 · 김문수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5000원

<불교, 교과서 밖으로 나오다>는 수행생들과 불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수행생들에게는 이미 교과서를 통해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재와 인물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험대비에 도움을 준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불교 사상과 이념, 불교 문화 및 역사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불교지식을 전해주기에 불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불교를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준 이 책은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동원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는 물론 민족문화에 대한 주체적 역사인식을 갖게 한다.

1부에서는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불교문화재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불교사상등을 다뤘으며, 2부에서는 우리 민중의 역사 속에서 혁혁한 활동상을 보인 12분 고승의 생애와 사상을 쉽게 서술했다.

돈오선-사람이 부처다

월암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2만원

돈오선(頓悟禪)이란 번뇌 망념이 본래 공함을 단박에 깨달아 일시에 괴로움에서 벗어나 일념 가운데 육도만행을 구족하는 것이다. 즉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밝게 알아 번뇌를 보리코, 생사를 열반으로 돌려쓰는 실천행이 돈오선의 종지이다. 단박에 깨달아 단박에 묶는 것을 돈오돈수(頓悟頓修)라 하면 단박에 깨달아 점차 끊어나가는 것을 돈오점수(頓悟漸修)라 한다. 이렇게 깨달음을 점차(漸)와 단박(頓)으로 분류해 정의하는 방법론을 돈점수증론이라 한다.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있었던 논쟁은 15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월암 스님(백송선원 원장)은 <돈오선-사람이 부처다>에서 육조 대사의 돈오선 이론과 실천을 통해 돈오돈수, 돈오점수 등 돈점수증론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폈다. 돈오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기술했는데 이를 통해 상호 윤회와 화해를 시도함으로써 수증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나름대로 해탈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 했다.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 - 본지풍광설화(本地風光說話)

성철 스님 지음 | 장경각 펴냄 | 1만8000원

조계종 전 중정이었던 성철 스님(1912-1993)은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취임해 1967년 동안거부터 정기적으로 상당법문을 펼쳤다. 스님의 법문은 선종 정통의 법문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이를 직접 100칙으로 정리해 출간한 것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이다. 본지풍광이란 선종의 조사들이 ‘때묻지 않은 심성’ ‘본래 우리 모습’ 등을 의미할 때 쓰는 말로, 본래면목과 유사한 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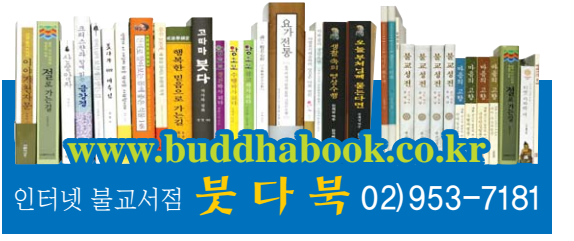
<무엇이 너의 본래면목이나>는 25년 만에 <본지풍광>을 해설판으로 새롭게 출간한 것이다. 성철 스님이 겹겹으로 던지고 있는 공안과 함께 스님이 직접 전하는 주석이라고 할 만한 육성법문을 함께 수록해 법회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본지풍광>의 전체 100칙 중에서 35칙까지 담았으며, 선종 역사를 아우르며 펼쳐지는 스님의 법문을 통해 선사들이 깨달은 인연은 물론 선종 역사를 함께 알 수 있을 것이다.

선종의 전통적인 법문 양식을 잘 보여주는 이 책은 당시 스님의 말씀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집해 수시(垂示), 본칙(本則), 염(拈) · 송(頌), 작어(著語), 결어(結語)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디온 마무리	법정	미음의 숲
2	스님도 군대 가나요	지장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미음의 숲
4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5	인과경	현담	선
6	한권으로 읽는 백리리경전	일야 역편	민족사
7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8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인연꽃
9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10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법이며	김일수	도파인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썩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현리 3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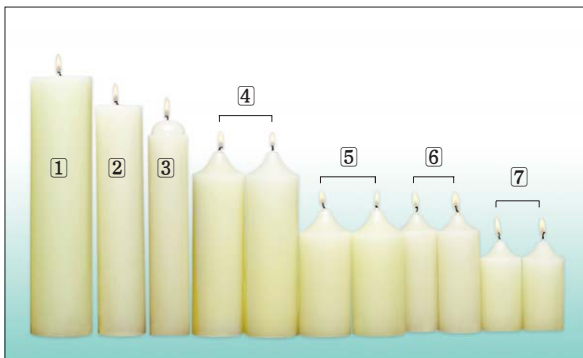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 ① 밀납초(1-4호까지 8개, 받침대 2개) 선물세트
 - ② 밀납초금강경(7개) 선물세트
 - ③ 밀납초왕기둥 7.4φ × 30Cm
 - ④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 ⑤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⑥ 밀납초 1호 금강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⑦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⑧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약썩향 양초
 - ① 왕기둥 7.4φCm × 29Cm
 - ② 돈타레 5.6φCm × 27Cm
 - ③ 밀 대 4.7φCm × 25Cm
 - ④ 1호 5.9φCm × 20Cm
 - ⑤ 2호 5.9φCm × 14Cm
 - ⑥ 3호 4.7φCm × 13Cm
 - ⑦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 35cm



■ 야광 용초 70φ × 35cm ■ 왕기둥 마패 7.4φ × 30cm
■ 등신불 마패 4.7φ × 19.5cm

주소장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 주소: 양초.net